

1950년대 전후 남성성의 탈구축과 젠더의 비수행Undoing*

허윤**

〈차례〉

1. 남성=군인=국민의 공식 너머에서
2. 결혼하지 못하는 해방의 아들 - 염상섭
3. 결혼을 거부하는 국적(國賊) - 손창섭
4. 결혼이라는 반복강박과 남성성의 파국

〈국문초록〉

본고는 1950년대 전후 남성성의 탈구축 양상을 통해 남성성의 비수행이 지닌 정치적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전후 문단의 중진인 염상섭은 전도된 삼각관계를 통해 남성성과 여성성의 역전을 보여준다. 『취우』, 『대를 물려서』 등은 여성 2명과 남성 1명의 역전된 삼각관계를 통해 남성성이 거래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때 남성주체는 기존의 연인과 새로운 연인(포식자 여성) 사이에서 갈등하며, '선택하지 않음'을 선택한다. 이는 정치적 주체인 거부장, 국민으로 바로서지 못하는 멜랑콜릭 남성주체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세대의 대표주자인 손창섭의 『공휴일』, 『인간동물원초』, 『혈서』 등은 결혼에 대한 거부에서 더 나아가 이성애 제도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확장된다. 손창

* 이 논문을 읽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심사의견을 통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정 과정에서 채워지지 못한 사항들은 반드시 추후의 연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예대 문창과 강사

섭의 남성주체들은 여성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보여준다. 이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언제나 남성을 거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적으로 형상화되는 범죄자, 잉여인간, 동성애자 등의 남성주체는 동성사회를 동성애적 사회로 만들며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중심축을 뒤흔든다.

핵심어: 남성성, 동성사회성, 멜랑콜리적 남성주체, 젠더의 비수행, 염상섭, 손창섭

1. 남성=군인=국민의 공식 너머에서

『만세전』의 이인화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향을 결정한 다. 하지만 그는 귀향을 망설이며 여러 곳을 거친다. 가족이 있는 조선으로 돌아가는 것을 망설이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와 가족, 무덤 같은 조선을 버릴 수도 없다. 제국의 헤게모니에 종속된 채 주변화된 식민지 조선은 사철 밭 벗은 아내나 한복을 입은 기생, 어린 누이동생과 같은 여성 이미지로 표상된다. 이들은 남편이나 오빠가 지식과 힘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인화가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궁극에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곳은 식민지인에게는 처음부터 박탈당했던 남성성의 세계인 것이다.¹⁾

그러나 해방과 건국은 가족의 재구축을 상상하게 한다. 가족은 “훼손된 전체를 재조직화하는 상상적 준거”로서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한 강한(완전한) 주체, 또는 훼손된 주체를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구심점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전후 완전한 가족에 대한 열망은 지금과는 다른 현실을 구축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²⁾ 바야흐로 아들이 새

1) 이인화의 불안은 식민지 극복과 근대 지향이라는 이중적 자아의 탄생이라는 아시아적 근대의 성격을 보여준 것이다. 김연숙, 『아시아적 근대와 청년 지식인의 '불안'』, 『인문학연구』 20,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5~35쪽.

2) 권명아는 이러한 가족상상이 희생적 어머니의 모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

가족을 건설하여 훼손된 민족국가를 재건하는 서사가 가동되는 것이다.

이때 이러한 토대를 뒷받침한 것이 일민주의와 북진통일론을 통해 공산주의를 섬멸해야 한다는 공격적 수사학이다. 이승만 체제를 뒷받침한 일민주의는 가정이 국가의 모델이자 축소판이고, 국가가 가정의 확대라고 보았다. 민족의 알레고리였던 ‘가족’을 국가로 바꿔놓으면서, 국가와 민족, 가족을 통합하는 것이다.³⁾ 이는 ‘핏줄’에 대한 강조로도 이어진다. “한 핏줄 한 운명을 가진 일민”이라는 사상은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고, ‘강철같이’ 단결하며 백두산을 정복하는 공격의 수사로 이어진다. 3.8선을 중심으로 한 냉전질서를 완성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남한의 영토와 외부의 적인 공산침략자로 이분된다.⁴⁾ 외부 공간에 대한 정복을 통해 민족을 번영케 한다는 파시즘적 세계관이 ‘공산침략자’를 상대로 확장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한국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심화된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총력전인 한국전쟁은 대동아전쟁의 성별이분법을 강화한다. 전쟁은 남성 전투원과 여성 민간인의 역할 구분을 통해 행위를 젠더화한다. 이 성별이분법은 군사화의 효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모든 인민의 젠더를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경제적 용어로 유평화하는 것이다.⁵⁾ 한국전쟁은 징병제를 통해 군인이 될 수 있는 자만이 국민으로 인정받을

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어머니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가족 재건의 임무를 부여받은 아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33~34쪽.

3) 일민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완성한 양우정은 국가를 가정 모델로 설명하며 가정이 공동생활체제의 기본이라고 주장한다. 좌익 사상가였던 양우정의 전향에는 핵심 논리로서 가족이 있었는데, 그것이 “국가를 부정하고 가정을 무시하는 공산주의는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로 결탁된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것이다. 후지이 다케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 역사비평사, 2012, 240~270쪽.

4) 1949년 7월 문교부가 제정한 <우리의 맹세>는 북진통일 완수의 의지를 드러내는 3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1950년대 출판된 모든 잡지와 단행본에 수록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2.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 부수자. 3.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

5) Kate Darian-Smith, “Remembrance, Romance, and Nation”, *Gender and Memory*,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151~164.

수 있다는 공식을 설정하였다. 훈련된 몸은 문명을 상징하는 하나의 징표였으며 근대화와 구국, 생산성의 상징이었다. 양민증이나 도민증, 군인증과 같은 생명관리제도는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성성을 관리하는 동시에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군복을 입어야 월급을 받고 도장을 할 수 있던 시절, 군복은 국민임을 증명하는 수단이기도 했다.⁶⁾ 이 군복의 남성성은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유지된다. 정희진은 친미 반공 군부독재 세력이 주도하는 호전적 남성성이 전후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군인다움과 용맹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철저한 의존을 요청하기 위해 여성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⁷⁾ 이는 한국사회가 표방하는 남성성이 얇은 토대를 갖고 있기에 무언가를 방패로 삼아야 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북진통일을 주창하며 목소리를 높이던 호전성의 음화로 기실 불확실한 남성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입장에서 1950년대 전후 남성성의 탈구축 양상을 통해 젠더 비수행의 정치적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젠더를 섹스에 대한 ‘사회화’의 개념으로 설명할 때, 남성성은 획일적이고 절대적, 고정적인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남성성 전체를 대변하는

6) 공군중군작가였던 최정희는 서울로 복귀하던 과정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복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회고한다. 군복을 입은 중군여성작가들은 국민으로 패싱 passing하는 것이 가능했고, 빨갱이, 부역자의 혐의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다. 줄고, 『‘비국민’에서 ‘국민’으로 거듭나기』, 『근대서지』 7, 2013, 565~585쪽.

“창공구락부에선 유니폼이나 구두뿐이 아니고 쌀, 광복도 배합을 받았다.(중략) 나도 입은 일이 있다. 공군복이 아니고 육군복이었다. 서울에 왔다 가야할 일이 있었는데 군복을 입지 않고선 기차를 탈 수도 없었으며, 도장은 더욱이 어려웠던 때다. 군복덕에 도장은 무사히 하게 되었다. 피난지 대구나 부산에서 그 어려운 고비를 겪으며 영등포까지 왔다가 한강을 넘지 못해서 영등포에 하차하는 사람들을 목격하곤 군복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정희, 『피난대구문단』, 『해방문학 20년』, 정음사, 1966, 103~104쪽.

7) 정희진, 『편재(遍在)하는 남성성, 편재(偏在)하는 남성성』, 『남성성과 젠더』, 자음과모음, 2011, 15~33쪽.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성을 동일한 집단, 실체로서의 남성으로 보는 것은 여성을 실체로서의 대문자 여성으로 보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다. 남성성 역시 복수적이며 임의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 복수적이고 다양한 남성성의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1950년대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염상섭과 손창섭의 소설을 분석하려고 한다. 1897년생인 염상섭이 문단의 중진으로서 신문연재소설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과 달리,⁸⁾ 1949년 등단한 신진 손창섭은 문예지를 통해 다수의 단편소설을 발표함으로써 리얼리즘과 실존주의의 총화로 한국문학사의 거점을 형성하고 있었다.⁹⁾ 기실 염상섭과 손창섭 사이에는 세대 차이, 활동한 지면의 차이 등이 놓여 있다. 그러나 사뭇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소설은 공히 결혼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멜랑콜릭적 남성주체를

8) 1950년대 염상섭 소설에 대한 연구는 ‘통속적이다’, ‘리얼리즘 수법으로부터 후퇴했다’는 등의 부정적 평가가 대부분이다. “『취우』는 일상적 삶의 연속성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전쟁이 야기한 거대한 지각변동과의 관련 양상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야의 문제이자 동시에 창작방법의 문제이다.”(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355쪽) 염상섭의 전기적 사실, 작품의 연보, 개별 작품의 분류 등 염상섭 연구의 토대를 닦은 김종균은 “상설 문학은 만세전에서 출발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1936년 불연속선으로 끝막음 한 것”이라며, 1950년대 이후 염상섭 소설을 논외로 삼는다. 염상섭의 문학을 ‘난세의 문학’으로 명명하는 이보영 역시 연구시기를 아예 일제 시기 문학으로 한정할 바 있다. 염상섭 문학을 근대적 제도 장치로서의 글쓰기와 ‘중산층 보수주의’, 가치중립성으로 설명하는 김윤식은 염상섭의 1950년대 소설은 바둑의 ‘끝내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염상섭 문학의 리얼리즘적 수법이 연애소설이나 혼사장애와 같은 통속적 서사에 매몰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염상섭 장편(신문연재)소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9) 손창섭 소설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 중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1950년대의 아웃사이더 정신이나 소외의식, 병적 인물군상을 중심으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과 시대정신을 연결시켜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는 손창섭 소설이 무의미에 대한 가치 부여이며 육체적, 정신적 불구자를 통해 삶의 은폐된 부분을 부각시켰다는 틀을 따른다(김윤식, 위의 책, 362~365쪽). 이러한 경향은 1950년대 말부터 신문연재에 주력한 손창섭에 대한 비판과도 연결된다. 논자들은 손창섭의 장편연재소설에 대해 리얼리즘 정신과 문제의식의 쇠퇴로 평가한다. “자의식의 충일도, 리얼리즘의 정신도 확인하기 어려운 일상성으로 빠져들고 만다”는 것이다.

통해 전후의 ‘헤게모니적 남성성’¹⁰⁾의 이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위에서 상기했듯, 가족의 건설을 통해 민족의 재건을 도모하려는 1950년대 담론 장에서 결혼은 가부장이 되기 위한 입사식의 관문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염상섭과 손창섭의 소설에서 결혼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이들의 소설이 남성이자 군인, 가부장이라는 정상성의 공식 너머에 있음을 암시한다.

2. 결혼하지 못하는 해방의 아들 - 염상섭

염상섭이 “작가로서 고자의 삶”¹¹⁾을 정리하고 ‘첫걸음’¹²⁾으로 제시한 『해방의 아들』은 가족 건설을 통한 민족의 재건을 서사화한다. 해방 후 만주에서 신의주로 돌아온 홍규는 아내의 출산을 기다리며 밀린 신문을 읽는 것으로 소일하고 있다. 태어날 아이가 딸이면 ‘해방’, 아들이면 ‘건국’으로 이름 지으려 구상하고 있기도 하다. 소설은 홍규 아내의 출산과 마쓰고-조준식과의 만남을 병치한다. 마쓰노-조준식은 일본인 어머니와 조

10)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R. W. 코넬이 제안한 개념으로, 남성의 지배적 위치와 여성의 종속을 보증하고 가부장제의 정당성에 대한 대답을 구현한 젠더 실천의 구성 형태를 말한다. 코넬은 남성 사이의 젠더관계를 헤게모니/종속/공모로 분석하는데, 종속된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부터 배제된 모든 것을, 공모적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저항도 하지 않고 남성지배적 사회로부터 간접적 이득을 얻는 형태이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 동의에 의해 작동하고, 사회적 정당성을 가지고 젠더관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코넬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고정된 성격유형이 아니라 기존 젠더 관계 패턴에서 헤게모니적 위치를 차지하는 남성성을 의미하며, 그 위치에는 언제나 경합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현재 수용되는’ 전략을 체현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유동하는 관계이며 가부장제를 수호하는 조건이 변화하면 특정한 남성성이 지배하는 데 필요한 기반도 침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R.W. 코넬, 『남성성/들』, 현민 외 역, 이매진, 2013, 111~136쪽.

11) 염상섭, 『홍보문단회상기』, 『사상계』, 1962년 11월호, 208쪽.

12) 『해방의 아들』은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으나, 이후 단행본에 수록되면서 내용의 변화 없이 제호만 바뀐다.

선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일찍 죽은 탓에 나가사키의 외조부 호적에 들어가게 되어 그동안 일본인 행세를 하고 있다가 해방과 더불어 “아버지 성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조준식이라는 이름을 되찾는다. 부계 혈통의 뿌리를 찾는 것이 해방과 더불어 일어난 가장 큰 변화인 것이다. 이때 홍규는 준식에게 ‘성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역할을 맡는다. 육체노동을 통해 가족을 먹여 살리고, 태극기를 통해 민족의식을 전한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일본인으로 살아야 했던 준식을 조선인으로 각성시키는 홍규는 준식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된다.¹³⁾ 이처럼 소설은 홍규와 홍규의 아들인 ‘건국’, 조준식과 그의 아버지처럼 부계혈통을 세움으로써 민족국가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다.¹⁴⁾ 그러나 이는 뒤집어 말하면 가능한 정치적 행위는 아들을 낳고, 부계혈통을 고수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매일같이 신문을 읽고 정세를 공부하는 홍규는 가족을 먹이기 위해 막노동을 하고 있고, 마쓰노-조준식은 일본에 갈지 한국에 남을지 망설이는 중이다. 이들에게 해방된 조선은 가족의 틀 안에서만 상상된다.

민족의식을 갖춘 아버지라는 이상적 남성성을 수행하는 ‘첫걸음’과 달리 1950년대 염상섭 소설은 여자 2명과 남자 1명의 삼각구도를 바탕으로 결혼을 모색하는 아들의 자리로 물러난다. 『취우』, 『미망인』, 『대를 물려서』 등은 정치가, 기업인 등의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청년세대로 이분된

13) “복에 있으나 남으로 내려가나 현해탄을 건너서 나가사키로 가시거나, 이 깃발 밑이 제일 안온하고 평화로울 것을 깨달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중략) “고맙습니다. (중략) 이 기를 받고 나니 인제는 제가 정말 다시 조선에 돌아온 것 같고 조선 사람이 분명히 된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려서 어렵듯이 뵈던 아버지가 불현 듯이 다시 한 번 뵈고도 싶습니다!” 염상섭, 『해방의 아들』, 『두 파산-염상섭 단편집』, 문학과지성사, 2006, 332쪽.

14) 마쓰노의 탈식민 문제로 분석되어온 해방의 아들을 여성의 자연적 출산과의 오버랩과 페이드아웃으로 설명한 류진희는 젠더를 분석범주로 하여 근대 민족-국가 체제 속 여성의 존재 의미를 묻는다. 부계적 혈통에 대한 강조 속에서 여성 주체는 봉인되었다는 것이다. 류진희, 『염상섭의 『해방의 아들』과 해방기 민족서사의 젠더』, 『상허학보』 27, 상허학회, 2009, 161~190쪽.

다. 가족로망스에서 구습에 젖은 아버지 세대와 새로운 질서에 맞는 가족을 꾸리고 싶어 하는 아들 세대의 갈등은 새로운, 긍정적 가치를 지닌 아들의 승리로 끝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1950년대 염상섭 소설에서는 민족국가 건설의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청년 남성들이 자신이 원하는 여성과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삼각관계에서도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강한 경제력과 생활력을 바탕으로 한 여성들이다. 남녀의 구도가 역전된 형국이다.

『취우』의 신영식은 사장의 비서이자 정부인 강순제와 약혼자인 명신 사이에서 고민한다. 성적 매력과 경제력, 빠른 판단력까지 갖춘 강순제는 적치 90일의 ‘예외상태’를 함께 하며 신영식의 연인이 된다.¹⁵⁾ 그녀에게 빨갱이 전남편이나 후원자인 김상호 사장은 “필요한 요구의 자연스러운 해결방도”일 뿐이다. 전쟁이 터지기 전 통역이자 타이피스트, 사장 김상호의 비서로서 풍족한 생활을 할 때의 강순제에게는 고지식한 회사원 신영식은 여동생 친구의 애인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다 전쟁이 터지고 피난에 실패하면서 늙은 김상호 대신 젊은 신영식에게로 관심이 옮겨가게 된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신영식의 젊은 육체이다.

15) 차랑차랑 끌리는 감장 벨베트 치맛자락 밑으로 내민 하얀 두 발도 이 여자의 웃는 얼굴과 같이 상큼하니 예쁘고 표정이 있어 보였다. 요릿집에서나 사무실에서 보는 여자밖에, 여자라는 것을 깊이 모르고, 명신이와 그만큼 교제를 해오면서도 명신의 육체미라는 것을 분명히는 모르고 지내 왔다. 그러나 명신의 부드럽고 풍만한 표정이나 체격에 비하면, 순제는 너무 또렷하고 신경질인 점도 있지만, 이 여자의 몸에서 풍기고 사지를 놀리는 대로 그리어지는 섬세하고도 기교적인 감미한 몸 전체의 표정을 영식이는 지금 새삼스럽게 발견한 듯이 멀거니 순제의 얼굴과 몸매를 바라보고 앉았다. (중략)

치마자락 밖으로, 한편은 누고 한편은 세워서 예쁜 조그만 발끝이 개웃이 내어다 보인다. 그 앉는 거동과 휩싸고 앉은 모양이 천생 남의 첩이라는 인상을 주면서도, 남자의 마음을 조발하듯이 건드리는 것이었다. (염상섭, 『취우』, 민음사, 1987, 44쪽)

영식이는 훌가분한 원피스 한겹에 싸인 예쁘다란 어깨집과 날씬한 허리께가 움직이는 대로 눈으로 쫓으며 그 몸을 싸고 풍기는 곡선미와 울동미를 가만히 바라보고 앉았다. 그것은 이때껏 이 여자에게서 보지 못하던 새로운 발견 같이 새삼스럽게 눈이 가는 것이었다. (염상섭, 위의 책, 63쪽)

순제는 머리와 어깨에 남자의 몸 기운을 느끼자, 그것이 한 방패가 되는 듯이 반갑기도 하고, 오그라붙은 마음이 조금은 간정이 되는 듯싶어 몸을 바스락 돌리면서 영식이의 팔을 꼭 껴안고 힘껏 매달렸다. 전신이 잠깐 바르르 떨리면서 이제야 피가 도는 듯싶었다.¹⁶⁾

피난길에 나선 자동차에서 피격을 당하자 강순제는 신영식을 ‘남자’이자 ‘방패’로 인식한다. 신영식의 존재가 각인되는 순간이다. 그때부터 강순제는 신영식을 의지하며 자신의 보호자이자 연인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구상한다. 전쟁의 예외상태가 신영식에게 관심을 갖게 한 것이다.

두 사람은 공산당을 피해 적치 서울에 숨어 살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진다. 신영식과 강순제는 공산당의 징집과 차출을 피하기 위해 부부로 행세를 한다. 처음에는 이웃의 눈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의 사이는 실제 연인관계로 진전한다. 이후 싫다는 영식을 끌고 가서 김상호 사장 앞에 인사를 하고 친정집에 들러 대접하는 등 순제는 둘 사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신영식이 징집되어 나간 후에도 신영식의 가족과 함께 그의 집을 지키며 기다린다. 자신이 가진 돈이나 금붙이를 팔아 영식의 집을 건사하는 강순제를 보며 신영식의 어머니 역시 며느리처럼 의지하게 된다.¹⁷⁾ 그러나 이 가족은 적치라고 하는 예외상태에서만 유지된다. 국군과 함께 ‘정당한’ 약혼녀 명신이 돌아오는 순간, 균열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미무역 회장의 딸인 정명신은 신영식과 10년 간 교제한 사이이며,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신영식과의 결혼을 추진할 만큼 신세대 여성이다. 그런데 이들의 결혼은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연기된다.

16) 염상섭, 앞의 책, 21쪽.

17) (마님은) 이렇게 순제를 앞세우고 나서니 며느리나 데리고 다니는 것 같아서 든든해 마음이 좋았다. (중략) 영식이가 떠난 뒤로는 천연동 집 살림을 순제가 도맡으나 다름없이 되었다. 속 모르는 사람은 며느리 행세나 직책을 단단히 하는구나 하고 웃을지 모르지마는, 몸담아 있을 데요 영식에게에 대한 향의로도 정성껏 하고 싶었다. (염상섭, 앞의 책, 193쪽)

정명신의 가족은 서둘러 피난을 떠났지만, 그 뒤를 따르려던 신영식은 발이 묶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영식은 강순제라는 새로운 연인을 만나고, 정명신과 신영식의 결혼은 불가능해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세가 역전되어 서울을 수복하자 국군과 함께 정명신이 돌아오고, 신영식은 강순제와 정명신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다. 육체적 매력을 지닌 강순제와 오랜 기간 교제해 온 정명신에 대한 신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다. 게다가 강순제는 피난과 강제징집 등의 고난을 아내로서 함께 한 여성이기도 하다. 이들의 긴장관계 속에서 신영식은 명신과 헤어지겠다는 말을 건네지 못한 채 차일피일 미룬다. 그러나 전선은 다시 한 번 후퇴를 거듭하고, 소설은 두 여자 사이에 낀 신영식이 어떠한 결단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끝을 맺는다. 결혼을 주저하는 신영식의 태도는 『취우』의 후속작인 『지평선』에서도 계속된다.

『지평선』은 부산으로 피난을 간 한미양행 주변 사람들과 신영식, 정명신의 결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김상호 사장의 아들 김종기는 피난지 부산에서 동아상사의 전무가 되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고, 미국 사찰도 다녀오는 등 재계의 인사로 활발한 활동을 한다. 신영식 역시 운크라에 드나들며 미국 대사관 직원 월슨과 친구가 되고, 미국행을 꿈꾼다. 강순제도 물러나고, 정명신의 아버지마저 결혼을 재촉하는 상황임에도 신영식은 결혼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인다. 살림을 차릴 만한 돈이 없으니 “좀더 공부를 해야 하겠다”, “혹 미국이라두 가게 되면 갔다 와서나 어떻게 해볼까” 한다는 영식의 태도는 명신과의 결혼을 유예한다.¹⁸⁾ 남성주체의 우유부단함은 『대를 물려서』에서도 계속된다.

『대를 물려서』는 태동호텔 여사장인 박옥주가 딸 신성을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인 안도의 아들 안익수와 결혼시키려는 데서 시작한다. 박옥주는 안익수를 딸의 생일파티에 초대하거나 그에게 영어, 독일어의 과외지

18) 1955년 『현대문학』에 연재된 『지평선』은 미완작으로, 『취우』 등장인물들의 부산 생활을 그리고 있다. 미국에 대한 사람들의 동경과 미국, 동남아 사찰 등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단초를 살펴볼 수 있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도를 부탁하는 등 둘의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실상 그녀가 못다 이룬 자신의 사랑을 딸의 세대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독립운동가이자 이상적 지식인이었던 안도의 아들이라면 자신의 딸에게 좋은 배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안익수가 좋은 남자인 것은 그가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이고, 안익수와 신성의 결혼은 모녀로 이루어져 있는 가족을 가부장 중심의 가족으로 재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안익수에게는 아버지의 친구이자 국회의원인 한동국의 딸 삼열이 있다. 안익수는 활기찬 신성에 유혹을 느끼면서도 연인인 삼열을 놓지 못하며 양쪽 모두를 저울질한다. 이들의 삼각관계는 우유부단한 남성 주인공을 중심에 두고 두 여성이 팽팽하게 경쟁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며 소설은 마지막까지 둘 중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난다. 미완의 결말을 맺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 2명에 남성 1명을 기본으로 하는 전도된 삼각관계는 경계에 놓인 남성성을 재현한다. 이브 세즈윅은 1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이라는 삼각관계가 실상 남성의 동성사회적 욕망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구조가 남성성 및 남성적 권력의 작동방식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여성의 성적 객체화를 통해 연대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는 남성에 의한 여성의 소유라는 조건 하에서 작동한다.¹⁹⁾ 그러나 1950년대 염상섭의 장편소설은 이 관계를 전도시키고 있다. 남성주체는 두 여자를 저울질하며 고민하며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남자를 욕망하고 있는 것은 두 여성이고, 남성은 욕망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여성들은 서로 상대방의 성적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 명의 남성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며 때론 연대하기도 한다. 『취우』의 마지막 장면은 피난 준비 과정

19) Eve K. Sedgwick, *Between Men*, Columbia UP, 1985, pp.21~27. 세즈윅은 남성 주체들 사이의 상호인정이라 할 수 있는 동성사회적 욕망이 사실상 동성애적 욕망과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여성적인 것에 대한 강한 부인은 “언젠가 성적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서 기인하고, 이는 강한 호모포비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에서 서로 협력하는 여성들의 연대를 보여준다. 이는 거래와 교환 대상의 자리에 여성 대신 남성을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자 거래’의 역전된 판본으로서의 ‘남자 거래’이다.²⁰⁾

강순제는 신영식과의 관계를 통해 ‘정상적’ 가족구도로 진입한다. 빨갱이인 남편 때문에 형무소에까지 갔다 왔으며, 김상호 사장의 첩 역할을 했던 강순제가 가족구도 안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정명신은 신영식을 통해 가부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는 낭만적 사랑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새로운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처럼 두 여성은 신영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체성을 확보한다. 하지만 이 관계망 속에서 남성은 고민과 방황을 계속할 뿐 어느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선택하지 않음을 선택’한다.

이것으로 완결된 것이 아닌 것은 아니나, 미흡한 생각이 없지 않아서 후일 건강이 허락하고 세 기회가 있으면 보죽할지도 모른다.²¹⁾

염상섭은 한 줄의 짧은 부기에서 두 번의 이중부정을 사용한다. “완결된 것이 아닌 것은 아니나”, “미흡한 생각이 없지 않아서”와 같은 이중부정은 “아직 상실되지 않은 상실”이라는 멜랑콜리아의 명제와 통한다. 아감벤은 멜랑콜리아가 “대상의 상실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한 발 앞서 애도하고자 하는” 역설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²²⁾

20) 게일 러빈은 레비스트로스와의 프로이트에 대한 재독해를 통해 “여성을 원자재로 간주하고 가내노예화된 여성으로 가공하는 체계적인 사회적 장치”를 분석한다. 여성을 거래함으로써 가부장적 이성애 사회와 국가가 완성된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Gayle Rubin, “The Traffic in Women: Notes of “Political Economy” of sex”, *Towards a anthropology of Women*, NT: Monthly Review Press, 1975, pp.157~210.

21) 염상섭, 『대를 물려서』, 민음사, 1987, 445쪽.

22) Agamben, Giorgio, *Stanzas: Word and Phantasm in Western Culture*, trans. Miartinez,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3, pp.3~28.

지젝은 멜랑콜리가 대상의 결여 그 자체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즉 욕망의 대상이 이미 원래부터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멜랑콜리아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대상은 실존하지 않는 왜상적 실체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상실한 대상에 고착시켜 집착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멜랑콜리아는 아직 상실되지 않은 대상의 상실이라는 부정의 부정을 수행하는, 욕망이 제거된 대상 그 자체의 현존이다.²³⁾ 그렇다면 염상섭이 이중부정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드러낸 대상은 무엇인가. 이는 이상적 남성으로 형상화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다.

『취우』의 김상호와 『대를 물려서』의 한동국은 재력과 정치적 권력을 가진 지배적 주체이다. 이들은 부인 외에 애인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그러나 소설은 이들 지배적 주체가 정치적 주체는 되지 못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제시한다. 김상호는 애인 강순체를 잃고, 전쟁통에 납북된다. 국회의원인 한동국은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기 위해 박옥주의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의 자본이나 욕망은 민족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있으며 조국을 건설하는 정치적 주체에는 이르지 못한다. 이는 완전한 주체로서 상정되는 아버지가 언제나 훼손된 것이었음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아버지를 상상하며 추동하는 이들의 작업도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염상섭의 아들들은 결혼할 여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망설인다. 두 여자 사이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다. 두 여자 사이에서 고민하던 영식이 자포자기하듯 전선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염상섭이 그리는 남성 주체가 당대 남성성의 자격 조건이자 표지였던 군인이 되기에 부족한 자들임을 보여준다.²⁴⁾

23) 지젝, 『우울증과 행동』, 『전체주의가 어쨌다?』, 한보희 역, 새물결, 2008.

24) “하지만 이 꼴루서야 당장 무슨 할 일이 있는 것두 아니요, 머릿살 아픈 꼴 보기두 싫구, 훨훨 나서 보구 싶어!”

영식은 그래도 고집을 부린다. 무엇이 머릿살 아프다는지? 얼굴에는 다시 고민하는 빛이 떠오르는 것을 두 여자는 제각기 딴 생각으로 말뚱치 치어다보았다. (염상섭, 앞의 책, 242쪽)

염상섭의 멜랑콜리아적 주체는 아직 가져본 적 없는 ‘남성성’을 이미 상실한 이중부정성을 체현한다. 이로 인해 결혼을 통해 가족을 건설하고 건강한 국가를 재건한다는 젠더 규범은 굴절된다. 이는 인구를 곧 자원으로 보며 정치적 공간을 상상한 생산권력에도 균열을 가하는 것이다.²⁵⁾

3. 결혼을 거부하는 국적(國賊) - 손창섭

염상섭의 아들들이 결혼상대자를 ‘선택하지 않음’을 택한다면, 손창섭은 이성애 관계를 거부한다. 청년인 주인공 주변에는 결혼을 재촉하거나 부탁하는 사람이 있지만, 결혼이나 연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손창섭의 남성주체들은 이성애에 대한 거부나 여성혐오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 단편인 『공휴일』은 도일에게 과거 교제했던 아미의 결혼식 청첩장이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청첩장을 ‘청춘을 물어버리는 한 구절의 장송문’이자 ‘청춘의 비문’으로 해석하는 도일은 약혼녀 금순과 어머니가 성혼을 재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두 번씩 찾아오는 공휴일에 사방 여섯 자 몇 치밖에 안 되는 방에서 글을 쓰거나 잡지, 신문을 뒤적이며 혼자 보낸다. “아들로서, 친구로서, 은행원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만을 감당하는 그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나 관계에 대한 욕망이 없

정명신의 오빠 정영달이 군인이 되어 바로 전쟁에 뛰어드는 것과 달리, 영식은 강순제와 정명신 사이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전쟁에 참여해야겠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그토록 애썼지만, ‘머리 아픈 꼴을 보느니 훨훨 나서 보고 싶다’는 고백이다. 이는 그의 참전 선언이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담화라는 것을 보여준다.

- 25) “인구수는 민족흥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소라 아니할 수 없다. (중략) 현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인구문제 해결의 긴요성은 병원충실을 위한 인구자원의 응급적인 과제가 아니고 금후 이십년 이후, 즉 장래의 우리민족의 운명을 담당한 민족성원의 신장에 관한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중략) 따라서 각국에서는 인구자원과 가(家)의 소질에 전쟁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시는 물론 평시부터 인구정책에 유의하여 산아를 장려하고 소질향상에도 힘쓰는 법이다.”

변시민, 「인구정책론」, 『사상계』 3호, 1953년 6월.

는 거세된 남성주체이다.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 접근하는 여성을 포식성을 가진 유혹자로 상상한다. 말도 제대로 못 붙이는 수줍은 성격의 금순이 약혼을 계기로 인기척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올 만큼 친밀감을 드러내자 이내 그녀를 “살찐 돼지”로 연상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양말을 신은 듯 만 듯, 발가락을 하나하나 헤일 수 있도록 환히 들여다보이는 금순의 발이, 도일에게는 징그럽기만 했다. 금세라도 저놈의 발이 발동을 개시하여 자기의 턱밑에 추켜들고 혀끝으로 쫄쫄 훑아달라고 조르거나 앓을까 싶어 도일은 은근히 맘이 쓰일 정도였다.²⁶⁾

앞으로 한 이불 속에서 밤을 지내야 될 때가 오면 이 여인은 아마도 술가지 꺾어 때듯 우적우적 자기의 신경을 분질러버릴지도 모른다고 도일은 생각하는 것이었다.²⁷⁾

도일은 여성이 보이는 친밀함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한다. 이는 그가 섹슈얼리티에 대한 공포와 혐오뿐만 아니라 여성의 육체를 거부하는 것을 보여준다. 바바라 크리드는 여성의 육체에 대한 거부는 ‘이빨 달린 자궁’을 가진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남성을 유혹하여 거세할지 모른다는 공포에서 비롯하고 있음을 지적한다.²⁸⁾ 손창섭의 소설 역시 마찬가지이다. 도일은 자신의 공휴일을 위협하는 금순의 육체에 대해 공포와 동시에 혐오를 느끼고 그녀와의 약혼을 파기할 것을 결심한다. 결국 『공휴일』에서 두 쌍의 결혼은 모두 무산된다. 아미의 결혼식에는 아이를 업은 여인이 찾아오고, 도일은 새출발을 다짐하며 금순과의 약혼을 취소하겠다고 결심하며 집을 나선다. 이는 남성 주체가 가부장이 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젠더 수행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범적 남성성은 남성적 아름다움에서 동성애적 요소를 제거하여 고결

26) 손창섭, 『공휴일』, 『손창섭 단편 전집』 1, 가람기획, 2005, 38쪽.

27) 손창섭, 위의 책, 41쪽.

28) 바바라 크리드, 『여성괴물』, 손희정 역, 여이연, 2008, 202~230쪽.

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민족주의와 고결함은 각자의 삶에서 ‘정상적’ 위치를 부여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여성과 남성에게 부여된 변별적 역할이다. 남성성은 깊이와 진지함을, 여성성은 얕음과 경솔함을 통해 성 역할을 구성한다. 각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민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²⁹⁾ 이때 젠더규범에 대한 해석은 신체적 감각이 주요 역할을 한다. 남성적 젠더는 움직이는 방식, 섹스할 때의 가능성과 관련된다. 진정한 남성성은 남자들의 몸에 내재하거나 몸에 관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된다. 공격성, 성욕, 충동 등 남성의 몸은 행동을 추동하거나 유도하며 양육이나 동성애를 거부하는 토대라고 상정된다. 이처럼 육체적 수행으로 남성성이 구축된다는 것은 수행이 계속될 수 없을 때 젠더가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⁰⁾ 이때 남성다움을 수행하는 대표적 행위는 이성애이다.

손창섭 소설은 이성애를 거부함으로써 젠더를 비이행한다. 손창섭 소설의 남성주체들이 생각하는 ‘살 만한 삶’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로부터도, 결혼이라는 이성애 제도로부터 자유롭다. 주변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거부하고 이성애라고 하는 몸의 수행을 거부한다. 몸의 물질성에는 예민한 감각을 드러내지만 남자다움을 수행하는 섹스는 하지 않는 것이다. 『비오는 날』의 동욱은 원구에게 “불구인 신체와 같이 불구적인 성격”의 동욱과의 결혼을 재촉한다.³¹⁾ 그러나 원구는 ‘무거운 머리’로 생각하느라 결단을 내릴 기회를 놓치고 만다.³²⁾

29) 조지 모스,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서강여성문학회 역, 소명출판, 2004, 9~42쪽.

30) R. W. 코넬, 위의 책, 80~99쪽.

31) “언젠가처럼, 내가 자네랑 동욱이와 결혼할 데야, 암 하구말구 하고 동욱은 고개를 주억거리는 것이었다.” 손창섭, 『비오는날』, 『손창섭 단편 전집』 1, 가람기획, 2005, 88쪽.

32) “물탕에 젖어 꿀쩍거리는 신발 속처럼 자기의 머리는 어쩔 수 없는 우울에 잠뭍 젖어 있는 것이라고 공상하며 원구는 호박 덩굴 우거진 철독 길을 걸어나갔다. 그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기에는 자기의 목이 지나치게 가는 것같이 여겨졌다.” 손창섭, 앞의 책, 79쪽.

얼굴이 고만큼 반반하고서야 어디 가 몸을 판들 굶어죽기야 하겠느냐는 말에, 이상하게 원구는 정신이 필쩍 들어 이놈 네가 동옥을 팔아먹었구나 하고 대들 듯한 격분을 마음속 한구석에 의식하면서도, 천근의 무게로 내리누르는 듯한 육체의 중량을 감당할 수 없어 그는 말없이 발길을 돌이켰다.³³⁾

동옥의 반반한 얼굴은 판매할 수 있는 자산이자 교환가능한 대상으로서의 여성 섹슈얼리티를 의미한다. 원구가 주인집 남자의 말에 격분하면서도 동옥을 찾아 나서지 않고 발길을 돌리는 것은 그러한 동옥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동옥의 지나치게 가는 다리는 오히려 육체의 중량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여성의 육체를 감당할 수 없다.

『사연기』의 정숙과 동식, 성규는 통학을 함께 한 고향친구이다. 동식과 정숙은 서로 좋아하던 사이였지만, 한국전쟁 당시 공산당이 들어오는 바람에 지주인 동식의 아버지는 처형당하고 동식마저 잡혀 들어가게 된다. 그러던 것을 공산당원으로 활동하던 성규가 정숙과 결혼하는 조건을 걸고 구해줌으로써 이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긴다. 정숙에 대한 욕망을 폭력적으로 성취한 성규는 병으로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된 상태에서도 정숙을 확대하고 동식과의 사이를 의심한다. 이러한 공격성은 성규의 생의 욕망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식에게 정숙은 과거의 추억일 뿐이다. 동식에게 삶은 ‘향락할 요소가 없는 구속’³⁴⁾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의 도착적 관계는 성규의 죽음과 정숙의 자살로 파국을 이룬다. 그러나 소설의 근본적 질문은 마지막 순간에 있다.

33) 손창섭, 앞의 책, 91쪽.

34) “8.15 해방 이래 한결같이 계속되는 초조, 불안, 울분, 공포, 그리고 권태 속에서 물심 어느 편으로나 잠시도 안정감을 경험해 본 적 없는 동식은, 결혼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느껴보지 못한 채, 앞으로 살아가노라면 어떻게든 자기의 ‘생활’이라는 것이 빚어지려니 싶어 어물어물 지내오다 보니, 오늘날까지 남들같이 출세도 못하고 돈도 못 모으고, 따라서 궁상스런 홀아비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손창섭, 『사연기』, 『손창섭 단편 전집』 1, 가람기획, 2005, 64쪽.

동식은 자살한 정숙이 남긴 편지를 통해 명호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 사실을 “놀랍고 저주스러운 것”으로 인식한다. 정숙과 두 아이의 보호자로 자임하였지만, 실제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지자 오히려 저주를 느끼는 것이다. 이는 ‘정상적’ 이성애 관계를 통한 가족의 건설과 재생산이, ‘저주’로 변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정말 저를 낳으셨수?”라는 「공휴일」의 질문 역시 이러한 ‘저주’와 연결된다. 자신의 기원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완전히 독립적인 개인의 출현이다.

성규의 폭력이나 동식의 부자관계에 대한 기피는 여성혐오라고 하는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래서 손창섭 소설 속 남성들은 주변의 재촉이나 부탁을 모두 거절하며 결혼을 완강히 거부한다. 가능한 이성애 관계는 결혼 밖에 있으며, 결혼은 강제이자 의무일 뿐이다. 동식은 이를 “8.15 해방 이래 한결같이 계속되는 초조, 불안, 울분, 공포, 그리고 권태 속에서 물심 어느 편으로나 잠시도 안정감을 경험해 본 적 없는” 탓으로 돌린다. 주변의 강권에 의해 결혼한 「피해자」의 병준은 아내와 아내가 데리고 온 아이, 그리고 장인 등이 자신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상황을 두고 “도대체 자기가 이렇게까지 오금을 못 펴고 찢찢매는 것은 모두가 팔자에 없는 결혼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결혼은 배우자가 상대방을 경제적, 감정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로 그려진다. 스위트홈은 어디에도 건설되지 않는다. 대신 존재하는 것은 남성 동성애이다.

「공휴일」에는 특이한 삽화가 한 장면 들어간다. 도일에게 여성의 몸에 대해 설명하던 친구가 도일의 배를 직접 만져보는 것이다.³⁵⁾ 이는 여성

35) “그 친구는 친절하게도 여자의 뱃가죽의 신비스러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 위해서, 술을 먹다 말고 자꾸 도일의 배를 좀 내보이라고 졸랐다. 그걸 거절하자면, 한참이나 아웅당해야 될 일이 귀찮아, 무탈한 남자들끼리만의 석상이라 그러면 어디 실험해보라고 하며, 도일은 허리띠를 끄르고 양복바지 괴춤을 풀어놓아 주었던 것이다. 친구는 만족한 듯이 뺨뺨한 그 손바닥으로 도일의 배꼽 아래계를 두어 번 뽐뽐 쓸어보고 나서, 손가락 끝을 집게처럼 해가지고, 이걸 좀 보라고 하며 뱃가죽을 집어보이는 것이다.” 손창섭, 「공휴일」, 『손창섭 단편 전집』 1, 가람기획, 2005, 39쪽.

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도일이 타인과 피부를 맞대는 유일한 장면이기도 하다. 동성 간의 친밀한 접촉은 『인간동물원초』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주사장-양담배, 방장-핑핑이 커플의 섹스는 감방 내에서 합의된 권력관계에 의해 질서지어진 것이다. 최장기수인 방장의 배치에 따라 감방의 구성원들은 동성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군부대에서 담배 한 보루를 몰래 빼돌리다 걸린 양담배는 주사장의 파트너가 되어 “밀구멍에 고름이 들” 만큼 밤마다 괴롭힘을 당한다. 강간범인 핑핑이는 방장을 상대해주다 어지럼증을 느끼게 될 정도이다. 삽입당하는 것이 성적 주체성을 잃고 객체가 되는 것, 즉 여성화되는 것이라면, 감방이라는 동성사회 안의 남성들은 각기 자신의 위치에 따라 남성과 여성을 오가며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사이의 동성애 행위는 남성성에 내재한 폭력성을 풍자적으로 드러낸다. 감방 안의 수직적 질서에 의해 정해진 역할을 단지 수행할 뿐,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성년자강간범인 핑핑과 임질균을 보유한 임질병, 힘으로 양담배를 제압한 주사장 등은 모두 남성성의 과잉을 보여주는 인물들이다. 이는 섹슈얼리티의 과잉, 여성혐오의 다른 버전이기도 하다. 여성을 정복의 대상으로 칭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여자라면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반응하도록 훈련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여성성의 기호에 반응하는 페티시즘적 욕망일 뿐이다.³⁶⁾ 수감자들은 섹스를 매개로 연대한다. 창밖으로 보이는 연인 혹은 여자를 두고 섹스를 상상하면서 공동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방장과 주사장은 자신의 남성성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 들어온 수감자를 놓고 경쟁한다. 신입은 그 둘의 경쟁 결과에 따라 누군가의 ‘여자’가 되어야만 한다. 이 동성애적 동성사회는 반사적 사도매저키즘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반사적 사도매저키즘reflexive sadomasochism은 남성성의 위기라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남성 주체를 확인하는 논리이다. 새디즘적 욕망의 대

36) 우에노 치즈코, 『여성혐오를 혐오하다』, 나일동 역, 은행나무, 2013, 12~28쪽.

상이 포기되고, 그 대상이 주체에 의해 대체되는 상황이다. 감옥에 수감되는 것은 사회로부터의 격리이자 거세를 의미한다. 이 거세는 동성애적 욕망으로 표현된다. 타자를 지배하고 괴롭히는 새디즘적 욕망이 자기 처벌로 돌아오는 심리적 과정이다. 본래 이 매저키즘의 구조는 여성과 남성으로 젠더화된다. 공격하는 능동/공격받는 수동의 이분법이 남성/여성 이분법으로 재기입되어 여성성에 대한 남성성의 처벌이라는 논리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³⁷⁾

그러나 「인간동물원초」에서는 이분법을 기입할 여성이 없다. 따라서 남성의 반사적 새도매저키즘은 자기 내부에 타자-여성을 만들고 처벌한다. 남성성을 확인하기 위해 남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항문성교, 가학성교 등의 새도매저키즘은 남성성을 확인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이들의 동성사회는 방장과 주사장의 경쟁이 과열되며 무너진다. 체형이나 피부, 몸짓 등이 여자 같은 소매치기가 새 수감자로 등장하면서 목은 갈등은 폭력사태로 번지고 방장은 주사장을 죽이고 만다. 남성성의 확인이 살인이라는 궁극적 공격으로 이어진 것이다.

「혈서」에서 시를 쓰는 규홍과 취직을 못하고 있는 달수, 한 쪽 다리를 잃은 준석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주체들이다. 이들은 훌륭한 군인도,

37) 사브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성 해방, 민족주의, 종교 등과 같은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미국의 백인 남성들이 자신이 힘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희생자화되었다고 느낀다는 점을 분석한다. 그는 이러한 희생자화가 남성성의 실패에 대한 오인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매저키즘은 “가부장제와 남성 동성사회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호모에로티시즘과 부인의 전략을 통해서 끊임없이 드러나고 숨겨지는 문화적 재생산의 방식”으로서 작동하며 미국의 백인 남성들에게 ‘남성답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미국의 백인-남성성이 매저키즘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사브란이 반사적 매저키즘이라고 부르는 정신분석학적 매커니즘이다. 그는 이처럼 피해자로서의 백인 남성성을 강조하는 것은 흑인, 여성, 동성애자 등의 억압과 지배의 역사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문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D. Savran, *Taking it like a man: White Masculinity, Masochism, and Contemporary American Cultu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pp.1~32, 89~90; 안상욱, 「한국사회에서 ‘루저문화’의 등장과 남성성의 재구성」,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1, 73~75쪽.

훌륭한 대학생도 되지 못한 잉여인간들이다. 규홍은 시를 습작하지만 제대로 완성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나마 달수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매일같이 밖을 돌아다니지만 소득은 없는 실정이다. 준석은 그런 달수와 매일같이 다툼을 벌이며 “너 같은 건 군대에 나가서 톡톡히 기압을 좀 받구 와야만 사람이 된다”, “군대에 나가기 싫으면 기피자다”라고 비난한다. 학교에 다니는 것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준석은 ‘제대로 된 인간은 군대에 다녀와야 한다’는 주장으로 우위를 점한다. 군대는 정상성을 확인받는 공간이고, 이에 병역을 피하고 있는 달수는 ‘비정상인’의 범주에 속한다. 달수 역시 병역기피자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럴 듯한 반박을 하지 못한다. 이들의 갈등은 창애의 임신을 둘러싸고 격렬해진다.

딸 창애를 규홍의 집에 두고 장사를 하러 돌아다니는 박노인은 규홍에게 딸 창애와 결혼해달라는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낸다. 그러나 규홍은 창애에게 관심이 없고, 달수는 창애에게 “병적으로 공포를 느낀다. 준석은 창애와 섹스를 했을 뿐이다. 남성주체들은 누구도 창애와 결혼하려 하지 않는다. 창애는 한구석에 “물건처럼” 객체화되어 있을 뿐, 입을 열지 않는다. 여성에 대한 공포와 대상화, 망설임과 무관심으로 설명되는 남성주체들은 반복되는 결혼 요구에 의해 문제상황에 부딪힌다. 준석이 창애와 규홍의 결혼을 적극 찬성하고 나선 반면, 달수는 창애가 준석의 아이를 가졌다며 규홍과 창애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느냐고 주장한다. 이에 격분한 준석은 달수를 향해 “이 육실할 자식아. 너는 국적國賊이다. 병역 기피자니까 너는 국적이야. 이 자식 어디 견뎌봐라. 내 당장 경찰서에 고발하구 만다. 너 같은 건, 너 같은 악질은 문제없이 사형이야, 사형. 내 당장 가서 고발하구 올 테다.”라며 폭언을 퍼붓는다. 기어코 달수의 손가락을 잘라 자원입대의 혈서를 쓰게 하는 것도 준석이다. 준석의 폭력은 자신과 창애의 관계를 지적한 데에 대한 처벌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님은 꼴인 달수에 대한 매저키즘적 폭력이기도 하다. 준석 자신이 군인으로 복무하다 다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준석은 기어코 달수의 손가락을 자르고, 기절한 달수를 뒤로 한 채 집

을 나선다. “어디를 가기 위해 뛰어나왔는지를 알 수 없”지만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는 없다”는 교착의 상황이 준석 앞에 펼쳐진다. 준석에게 군대는 잘린 한 쪽 다리와 히스테리를 남겼다. 대신 준석은 국적이 아닌 국민의 발화위치를 확보한다. 그러나 준석이 군필자로서 보장받은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이내 목적지를 잃은 발걸음으로 치환된다. 어디로든 발을 옮겨놓아야 했지만, 갈 곳을 모른 채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준석의 뒷모습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놓인 자리이기도 하다.

손창섭은 직접적 군사주의와 국민에 대한 폭력적 예측으로 실존을 의심받는 시대에 어떻게 남성성을 재구성해야 할지에 답하며 자신의 주체성을 상상해야 했고, 그 결과 자기 내부에 타자를 소환한다. 손창섭의 무성애적 남성들과 동성애, 이성애 가족관계의 폐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4. 결혼이라는 반복강박과 남성성의 파국

1945년 해방과 대규모의 인구이동, 좌우익 이데올로기 갈등과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한국사회는 그야말로 환대가 불가능한 이웃들과 함께 하는 삶을 체현한다. 특히 징병이나 부역행위자 적발, 자본가 색출 등을 피해 숨어 있는 남성들에게 이웃은 가장 조심해야 할 상대였다. 이웃은 언제든 나를 죽이거나 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내적인 불안은 외부로 확산되면서 유동적인 주체를 형성하고, ‘건국’을 거세하는 결과를 낳는다.³⁸⁾ 귀환과 전쟁 과정에서 남성주체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거나

38) 불안은 위험상태의 등장을 예고함으로써 위험상황을 효과적으로 피하거나 방어할 수 있도록 자아가 보내는 신호이다. 하지만 불안은 주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확장되는 성격을 갖는다. 미래의 시간개념과 결합된 불안은 지연 deferral과 예상의 시간적인 역학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차원 또한 가지고 있다. 심리학적인 담론에서 불안은 예상되고 투사된 사건에 정동적으로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로 투사되고 대체된다는 점에서 타자에게 향하게 되는 감정이다. 즉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해 무기력해진다.

염상섭은 전도된 삼각관계를 통해 남성성과 여성성의 역전을 보여준다. 전쟁미망인, 노처녀, 자본가의 첩이나 딸 등 포식자 여성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며, 자신의 실력과 외모, 자본 등을 바탕으로 하여 위기 상황에서 남성주체를 도와준다. 이들은 자신의 연인에게 경제적, 정신적 증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감정적 부채를 지우고, 구애를 계속한다. 멜랑콜리한 남성주체는 기존의 연인과 포식자 여성 사이에서 갈등하며,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다. 이들의 탐색형 결혼 서사는 우애, 사랑 등의 감정적 호혜관계가 무너지고 건강한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비수행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손창섭은 결혼에 대한 거부에서 더 나아가 이성애 제도에 대한 부정을 보여준다. 손창섭의 남성주체들은 여성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드러낸다. 이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언제든 남성을 거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적으로 형상화되는 범죄자, 잉여인간, 동성애자 등의 남성주체는 동성사회를 동성애적 사회로 만들며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중심축을 뒤흔든다. 이들의 소설에서 남성성은 가부장이 되고, 군인이 되어 적을 무찌르고 민족을 번성케 해야 한다는 헤게모니로부터 거리를 둔 비수행적 젠더이다.

남성주체는 끊임없이 결혼을 요구받지만, 이들은 결혼을 유예하거나 거부함으로써 가부장으로서의 남성성을 부인한다. 이는 할아버지 이승만으로 형상화되는 한국사회의 가족질서에 균열을 내는 것이기도 하다. 군인도, 남편도, 아버지도 되지 않는 남성성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젠더의 비수행에 주목하는 것은 1950년대 여성문학 연구의 저변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불안은 내적인 것에서부터 내부/외부 사이의 경계구분 자체의 문제로 관점을 변경한다.

홍준기, 『라캉과 프로이트·키에르케고르-불안의 정신분석 I』, 『라캉의 재탄생』, 창비, 2002, 193쪽.

1950년대 여성문학 연구는 손소희, 한무숙, 한말숙 등 여성작가를 중심으로 한 작가론에서 더 나아가 문화연구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여성독자나 여성관객 등 여성행위자를 중심으로 논의하거나 대중문화 속 여성 재현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³⁹⁾ 또한 『여원』을 다각도에서 조명함으로써 전후 문학 장의 성격을 밝히고, 전문화된 여성 매체의 가능성을 논구하기도 하였다.⁴⁰⁾ 이러한 연구는 여성에 의해 창작되고 여성에게 읽히는 문학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양공주, UN마담 등 여성의 유포화를 통한 젠더화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여성의 행위성에 주목하여 여성문학 연구를 한 단계 성장시킨 바 있다. 이를 여성젠더의 성별화된 수행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남성성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950년대 전후 남성성에 대한 연구는 성별화 과정을 통해 남성답게, 여성답게 젠더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권인숙은 반공이데올로기와 국가재건, 부국강병의 주체형성을 명분으로 한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의 주요 대상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을 젠더적 관점에서 다시 읽는다. 검열과 경계가 주로 여성성의 영역으로 모아진 결과, 청소년들의 문체는 여학생들의 순결과 소비, 의상문제로 집중되어 나타나는 반면, 남자 청소년들은 남자다운 기상을 재정립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남자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는 본능에 충실해도 된다는 관용적 담론이 생성되는 등 성별화 과정이 진행된다는 것이다.⁴¹⁾ 이호걸은 남성성 연구의

39) 여기에 속하는 연구로는 김윤경, 「1950년대 여성독자의 형성과 문학규범의 변화」,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12; 노지승, 「1950년대 후반 여성 독자와 문학 장의 재편」, 『한국현대문학연구』 30, 한국현대문학회, 2010, 345~375쪽 등이 있다.

40) 이선미, 「1950년대 젠더 인식의 보수화 과정과 ‘왈순아지매」, 『여성문학연구』 21, 2009, 161~201쪽; 「여원의 비균질성과 ‘독신여성’ 담론 연구」, 『한국문학연구』 34,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8, 51~81쪽; 김양선, 「전후 여성문학 장의 형성과 여원」, 『여성문학연구』 18, 2007, 61~91쪽; 장미영, 「대중성의 확대와 변형」, 『국어문학』 53, 국어문학회, 2012, 263~285쪽; 한국여성문학연구회 『여원』연구팀, 『『여원』 연구: 여성 교양 매체』, 국학자료원, 2008 등이 있다.

41) 권인숙, 「1950~70년대 청소년의 남성성 형성과 국민 만들기의 성별화 과정」, 『한

확장을 꾀한다. ‘남성신과’는 여성은 감성, 남성은 이성이라는 성별 이분법을 해체하고 남성성의 이면을 고찰한다는 측면에서 젠더수행 논의의 장을 확장시켰다.⁴²⁾ 남성성이 담론에 의해 구성되는 수행성의 정치적 효과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연구에 더해 비수행의 영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적 젠더, 혹은 남성적 젠더의 반복적 호명과 수행은 생물학적 섹스를 기준으로 젠더를 상상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성별화된 수행성과 더불어 비수행의 영역을 살펴보아야 하는 근거가 된다. 젠더의 ‘정상적 개념’은 개인의 성격이나 ‘살 만한 삶’에 대한 추구를 통해 비수행될 수 있다. 젠더가 끊임없는 수행된 행위doing라면, 이는 자동화되거나 기계화된 것이 아니라 제약이 있는 가운데 즉흥적으로 고안해낸 실천이다. 따라서 젠더는 수행과 비수행undoing, 비이행undone의 다양한 가능성 속에 놓여 있다. 버틀러는 이 ‘비정상성’을 젠더의 비수행이라고 말한다.⁴³⁾ 성별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군사화된 남성성만이 아니라 여기에 속하지 않으며 상시적으로 구성되는 유동적인 남성성, 가부장제를 거부하는 남성성 담론도 살펴야 하는 것이다. 이 비수행의 영역을 보여주는 것이 염상섭과 손창섭의 1950년대 소설이다.

여성성이 성별화된 존재로서 유표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성 역시 지속적으로 소환된다. 60~70년대 산업역군으로서의 노동자 남성과 80년대 민주화 투사로서의 남성, 90년대 후반 등장한 위기의 남성 등 담론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반복적으로 호명한다. 이러한 호명은 어째서

국민족운동사연구』 5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281~321쪽.

42) 이호걸, 『1950년대 대중서사와 남성성의 정치적 징후』, 『한국어문학연구』 52,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9, 229~266쪽. 이호걸은 남성신과라는 개념을 통해 남성의 눈물이 감상적 가족주의와 연결되며 이것이 한국 근대화 추진의 동력이 되어 왔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1950년대 대중서사가 재현한 남성들은 신과적 눈물을 흘리지 않고, 감상주의적 가족적 주체성과의 결합을 끊어내는 탈신과화 경향을 보인다고 읽어낸다.

43) Judith Butler, *Undoing Gender*, Routledge, 2004, pp.1~16.

반복되는 것일까. 버틀러는 전사자나 납북자 등의 슬픔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애도되고 애국심을 조장하는 데 동원되는 반면, 어떤 종류의 슬픔은 무시되고 망각되고 삭제된다고 말한다.⁴⁴⁾ 이 반복적으로 애도하는 슬픔이 남성성이다. 해방은 왔지만,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구축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남성성의 토대를 이룰 결혼에 대한 서사는 강박적으로 반복된다. 그러나 그 반복에도 불구하고 남성성은 여전히 비수행적이다. 이는 한국소설이 실상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손창섭, 『손창섭 단편 전집』 1, 2, 가람기획, 2005.

염상섭, 『대를 물려서』, 민음사, 1987.

염상섭, 『지평선』, 『현대문학』 1955년 1~6월호.

염상섭, 『취우』, 민음사, 1987.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33~34쪽.

권인숙, 『1950~70년대 청소년의 남성성 형성과 국민 만들기의 성별화 과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281~321쪽.

김연숙, 『아시아적 근대와 청년 지식인의 ‘불안’』, 『인문학연구』 20,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5~35쪽.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355쪽.

류진희, 『염상섭의 『해방의 아들』과 해방기 민족서사의 젠더』, 『상허학보』 27, 상허학회, 2009, 161~190쪽.

안상욱, 『한국사회에서 ‘루저문화’의 등장과 남성성의 재구성』, 서울대 석사 학위논문, 2011, 73~75쪽.

44) 주디스 버틀러, 『불확실한 삶』, 양효실 역, 경성대출판부, 2008, 45~84쪽.

- 이호걸, 『1950년대 대중서사와 남성성의 정치적 징후』, 『한국어문학연구』 52,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9, 229~266쪽.
- 정희진, 『편재(遍在)하는 남성성, 편재(偏在)하는 남성성』, 『남성성과 젠더』, 자음과모음, 2011, 15~33쪽.
- 허윤, 『‘비국민’에서 ‘국민’으로 거듭나기』, 『근대서지』 7, 2013, 565~585쪽.
- 홍준기, 『라캉과 프로이트·키에르케고르-불안의 정신분석 I』, 『라캉의 재탄생』, 창비, 2002, 193쪽.
- 후지이 다케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 역사비평사, 2012, 240~270쪽.
- 주디스 버틀러, 『불확실한 삶』, 양효실 옮김, 경상대출판부, 2008, 45~84쪽.
- R. W. 코넬, 『남성성/들』, 현민 외 역, 이매진, 2013, 111~136쪽.
- 바바라 크리드, 『여성괴물』, 손희정 역, 여이연, 2008.
- 조지 모스,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서강여성문학회 역, 소명출판, 2004, 9~42쪽.
- 우에노 치즈코, 『여성혐오를 혐오하다』, 나일동 역, 은행나무, 2013, 12~28쪽.
- 슬라보예 지젝, 『우울증과 행동』, 『전체주의가 어쨌다구?』, 한보희 역, 새물결, 2008.
- Agamben, Giorgio, *Stanzas: Word and Phantasm in Western Culture*, trans. Miartinez,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3, pp.3~28.
- Judith Butler, *Undoing Gender*, Routledge, 2004, pp.1~16.
- Kate Darian-Smith, “Remembrance, Romance, and Nation”, *Gender and Memory*,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151~164.
- Gayle Rubin, “The Traffic in Women: Notes of “Political Economy” of sex”, *Towards a anthropology of Women*, NT: Monthly Review Press, 1975, pp.157~210.

D. Savran, *Taking it like a man: White Masculinity, Masochism, and Contemporary American Cultu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pp.1~32; 89~90.

Eve K. Sedgwick, *Between Men*, Columbia UP, 1985, pp.21~27.

Abstract

The deconstruction of post war masculinity and undoing gender in 1950's

Heo Yun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de-construction procedure of masculinity in Korea. In 1950's Korea, building a family was connected to reconstruct the nation. People wanted to have a great father and well governed family. But Yeom shows the gender reverse through the love triangle of 2 women and 1 man. In this triangle the man are sexually objectified by the women. The melancholy of men chose not to choose a wife. And the masculinity was objectified by the narrative.

Son deprived the nation-narrative from the marriage-seeking narrative. Son's male figures are afraid of female sexuality, and deny the hetero sexuality. This is because they think female sexuality can castrate them. Son's national criminals make homosocial society become homosexual society, so the hegemony of masculinity could collapse.

Key words: Masculinity, Homosociality, Melancholia, Undoing gender, Homosexuality

■ 본 논문은 10월 30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9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